

9/13/15

설교 제목: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본문: 마태복음 20:1-16

(마 20: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마 20: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마 20:3)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마 20: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마 20:5)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마 20:6)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마 20: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마 20: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절관주** 행 17:31, 살전 4:16

(마 20:9)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마 20: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마 20: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마 20: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마 20: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 20: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 20: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마 20: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사 2:12, 눅 19:17

누구의 글이나 연설 또는 말들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글쓴이나 연설자, 또는 말하는 사람의 논점을 먼저 파악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그들이 지금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글을 보거나 연설이나 말을 들으면 그들이 말하려는 의도를 곡해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들을지라도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분분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들리는 말만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포도원 일꾼들의 품삯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자칫하면 말씀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하!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나 조금하나 똑같이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니 조금하게 굴지 말고 되는대로 하자!

아하! 하나님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상관없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 기분대로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구나!

등등의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러면 이시간 도대체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 20: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포도원 집 주인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해석해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셨는지 그 배경을 살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수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정확하게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이런 때 한 부자 청년이 찾아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16)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19:17)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왜람되게도 자신은 지금껏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 왔다고 대답합니다.

(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19:20)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부자 청년에게 일갈을 가하십니다.

(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21)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네가 진실로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면 네가 어떻게 그 소유를 다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19:22)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이 진실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알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자신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간다면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자만감이 은연 중 베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물으러 왔다가 보다는 예수님께서 “네가 못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하는 칭찬겸 확인을 받으러 왔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을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 저들이 구원을 얻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한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자이건 병든 자이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이건 저주를 받은 문둥병자이건 귀신들린 자이건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할 만큼 계명을 지키고 살았건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상대적인 의 즉 남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고 남보다 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만을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흠도 점도 없는 절대적인 의가 필요합니다.

천국은 한치의 죄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흰 종이에 먹물이 아주 조금 한 방울 떨어져 묻은 것과 아주 많이 떨어져 번진 것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더럽혀진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치던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자 제자들은 놀랍니다.

(마 19: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마 19: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제자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때때 묻습니다.

(마 19: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배은망덕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하고 한 날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온종일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던 배운 것 없는 어부였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아 새벽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지쳐있었습니다.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웬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소명을 주셨고 베드로는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채 3 년이 되지도 않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얻을 것은 무엇이나고 위풍당당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 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 19: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자세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무언가 미진함을 느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다시 천국에 대해 부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휘두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 집 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 집을 나갑니다.

당시 유대 시간은 새벽 6 시가 0 시로 7 시 8 시 9 시가 각각 1 시 2 시 3 시입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새벽 6 시부터 저녁 6 시까지 하루 12 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임금으로 대략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요즈음 시간으로 6 시, 유대 시간으로 0 시입니다)에 장터 요즈음의 인력 시장으로 나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3 시간 후인 제 3 시 (요즈음 시간으로 9 시입니다) 에 다시 장터에 나가 아직도 일이 없어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품꾼을 발견하고 이번에는 얼마를 주겠다는 합의없이 그냥 상당히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포도원에 들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첫번째로 온 일꾼들의 품삯을 기준으로해서 약 3/4 데나리온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집 주인은 제 6 시와 제 9 시 (요즈음 시간으로 정오와 오후 3 시)에도 장터에 나가 품삯을 상당히 주겠다고 약속하고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입니다.

이들도 그들이 일을 한 시간 만큼 1/2 이나 아니면 1/4 데나리온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포도원 집 주인이 심지어 하루 일을 다 마치기까지 한 시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제 11 시(오후 5 시)에도 장터에 나가 아직도 거기서 놀고 있는 품꾼을 발견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품삯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품꾼들도 별로 특별한 기대 없이 그래도 노는 것보다 나니까 따라갔을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에는 세 종류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 1) 한 데나리온 품삯을 정하고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품꾼
- 2) 상당한 품삯을 약속받고 제 삼시, 육시, 구시에 들어와 일한 품꾼
- 3) 품삯을 정하지 않고 일 끝나기 한 시간 전에 들어와 일한 품꾼

저녁이 되는 제 십이시 (요즈음 시간 오후 6 시입니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노동이 끝나고 품삯을 받는 시간입니다.

율법(레위기 19:13, 신명기 24:15)에 품삯은 일한 후 저녁에 바로 지불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일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 일입니까?

제 열 한시에 들어 와서 한시간 남짓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른 품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각기 나름대로 행복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벽 이른 시간에 들어와 일을 한 품꾼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단지 한 시간 일한 품꾼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그럼 그들보다 11 시간을 더 일한 나에게서는 얼마나 줄까?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의 설레임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 20: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마 20: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불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그렇지만 매우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20:13)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품꾼을 들이기전 장터에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여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니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후하게 품삯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적반하장입니다.

자신과의 계약을 지켰으면 됐지, 그리고 이른 새벽에 와서 일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더 후하게 품삯이 지급되었는데 지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의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쟁 의식, 비교 의식으로 인해 그들은 포도원에 뿔뿔히 들어와서 일한 기쁨을 다 잃어 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선한 뜻과 자신의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한 데나리온도 안되는 품삯으로 품꾼들이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도와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20:14)

(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20:15)

포도원에 불러 들임은 받은 것은, 천국에 불러 들임을 받은 것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구나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신 것은 더욱 더 큰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누구였습니까?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그 분의 저주 즉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처음 섰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아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허탈해 하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날 주님을 통해 죄를 깨닫고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꼬옥 끌어 잡아 주시면서 당신의 피로 깨끗이 닦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부어 주신 은혜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주님을 원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부름 받아 아주 짧은 시간만 주님 섬기다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너무 일찍 부름을 받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른 아침부터 불러 들어와 기쁘게 하루 종일 노동을 한 품꾼과 선택되지 않아 오늘도 공치는 것이 아닌가 하루 종일 초조해 하며 기다렸다 맨 마지막에 불러 들어간 품꾼 중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일찍 부름 받아 평생 주님 섬기다 천국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19 장 마지막 구절과 20 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지막 구절이 정확하게 같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9:30)

(마 20: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의 감격을 잊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격없는 죄인 된 우리를 어떤 조건도 없이 천국으로 불러 들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일까지 맡겨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각자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